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 과제 모색,  
 <2004 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날' 세미나 개최기념> ⑤

#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부산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김숙정\*

**부** 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학습력 신장 및 창의력 신장, 시민들의 지식정보 사회의 능동적 적응과 평생학습 부응을 위해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호에만 그치는 탁상공론식의 독서운동을 지양하고,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독서하는 부산시민의 저변확대로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을 참조하여 BBS(Busan Book Start)를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영국의 운동과 그 추진내용과 방법은 다르나 그 근본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되며 부산시민의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운동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통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로 깨어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독서생활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BBS 운동은 여러 가지의 구체적 사업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BBS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책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부산지역의 기업, 사회복지단체, 부산지역의 대형서점 등과 협력해서 도서교환권을 선물하여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구입·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에 2,000명에 이어 2004년에는 5,000명에게 도서교환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책을 사서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sjvision@hanmail.net

두 번째는 BBS ‘책 읽는 즐거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손 가까이 책을 댄으로써 틈나는대로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 범시민 교양도서를 핸드북으로 제작하여 많은 책을 구하기 어려운 장소나 단체에 책을 선물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 이어 올해에는 3월 첫째주 토요일부터 11월 첫째주 토요일까지 8회를 예정 서면지하철 환승역(롯데백화점 지하 출입구 부근)에서 약 30만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4,800가구에는(시청 사회복지과 협조) 책을 직접 배송하여 책을 읽도록 추진하고 있어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 깊숙이 파고드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범시민 도서교환전’ 실시이다. 가정의 책꽂이에 장식되어 있는 다 읽은 책이나 자녀의 성장으로 인하여 나누고 싶은 책을 기증하고, 읽고 싶은 새 책 또는 우리농산물로 교환함으로써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적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2003년 2차에 이어 2004년에도 6월 13일에 실시한다. 행사 후 남은 책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도서관 및 주민문고, 찜지도서관, 병동 등에 기증한다.

네 번째로는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부산 ‘One Book One Busan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누구에게나 권장할만한 단 1권의 범시민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부산시민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2004년 1월말 1차로 10권의 책을 선정하고, 2월 중순까지 우리 교육청 및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시민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팽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저, 창작과비평사, 2000)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책은 5월 6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5월 23일 부산시청 앞뜰, 6월 5일 서면지하철 환승역 등 3차에 걸쳐 1만부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다. 특히 3차 때에는 북크로싱 운동과 접목해서 11개 공공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서로 돌려읽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후에는 7월말 여름방학 중 범시민 가족 독서캠프, 11월 중 범시민 독후 행사 및 작가와의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부산시민의 독서생활화 운동에 관한 인식제고 기회 마련, 교육공동체가 함께 뛰어가는 부산 독서문화 정착, 부산시민의 생각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작은 기회 마련, 부산북스타트 운동의 정착 기회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부산MBC가 ‘책 권하는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부산북스타트 운동의 실천적 전개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며 부산지역의 다양한 독서행사 및 독서운동을 발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독서습관 정착 및 책 읽는 부산시민의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매주 금요일 아침 08:00~08:50 사이 “책 권하는 세상 만들기”가 10분간 방송된다. 프로그램은 시민독서생활화 운동관련 독

서행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 및 우수 독서지도 사례,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및 다양한 독서단체 활동 안내, 시민참여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여섯 번째로는 부산일보사와 함께 '범국민 독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BBS운동의 실천적 전개와 안내된 책을 읽도록 독서주자를 선정, 책을 무료로 배부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돌려 읽도록 권장함으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5월 13일 선포식을 가지고 초·중·고 학교대표 (606개교) 교사, 공공도서관의 기관장 200명, 범시민 독서축제 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선정된 580명의 시민을 첫 주자로 선정하여 현재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11월 범시민 독서감상 발표대회에서는 소감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의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기회 확대, 시민참여기회를 통한 독서생활화 관련 다양한 즐거움 제공,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를 통한 부산시민의 문화의식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시청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관공서는 물론 공공도서관 등과 함께 BBS 운동을 중심축으로 해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축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가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는 데 확실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 주소 : <http://reading.pen.go.kr/>) 